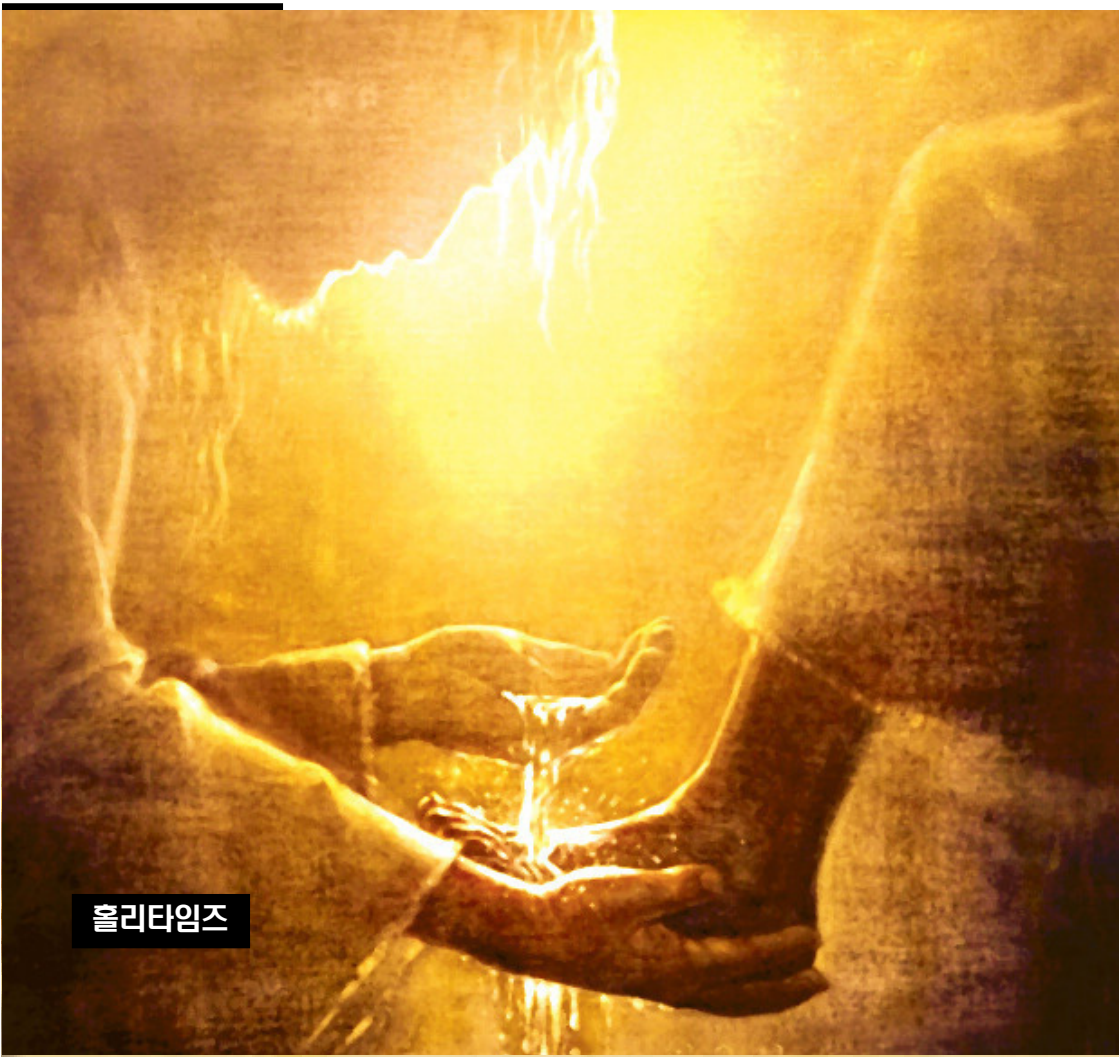


로마서반 교재

데이빗리 목사



홀리타임즈



목차

CONTENTS



제 1 장 로마서 서론 _ 5

제 2 장 전도자 바울의 준비 _ 12

제 3 장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자 _ 25

제 4 장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가? _ 33

제 5 장 믿는자의 삶 _ 50

제 6 장 사망과 생명 _ 63

제 7 장 육과 영 _ 77

제 8 장 성령님과 성도의 관계 _ 82

제 9 장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_ 112





1 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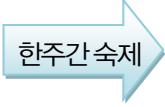
로마서 서론

제 1 장 로마서 서론



훈련 목적

- * 로마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한다.
- *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한다.
- * 로마서의 영적인 흐름을 깨닫는다.
- *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한다.



한주간 숙제

- * 로마서를 정독한다.
- * 날마다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 * 받은 은혜를 영성일지로 남긴다.

1. 표제

'로마서'라는 제목은 후대에 이르러 사용된 제목입니다. 처음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에는 이런 제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2. 저자

가.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이라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로마서 16장의 내용이 원래 로마서에 포함되어있지 않을 수 있을거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16장에 열거된 사람들의 명단이 아직 한번도 방문해본 적이 없는 로마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토록 많은 친구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 불가능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가 세계적인 도시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방문이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충분히 로마에 많은 친구를 둘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보수적인 입장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모두 로마의 성도를 위해 쓰여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누구인가?

- 1) 바울은 다소(Tarsus)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의 선생은 가말

리엘이었는데 그는 그당시 최고의 선생
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에게서 바울은 유
대인의 전통적인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
다.

- 2) 바울의 직업은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습
니다. 바울은 이 직업을 통해 자신과 함
께 하는 사역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었
습니다.
- 3)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그리스도인 중의
첫 순교자는 스테반이었습니다. 스테반
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현장에 바울
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붙
잡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는 일을 맡았
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바울은
아무 악명높은 사람이었습니다.
- 4) 다메섹 선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게 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회심을 하게
되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 5) 그는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사
명을 받습니다.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그
곳에서 3년 동안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

을 가졌습니다. 아라비아에서 돌아온 바울은 안디옥에서 1년을 보낸 다음 그곳에서 선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 6) 그는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수많은 서신을 썼습니다. 그는 참수형을 당하셨습니다.

3. 역사적인 배경

가.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에 석달 동안 고린도에 체류했을 때 쓰여졌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행 20:1-3 참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A.D. 57-58년에 로마서가 쓰여졌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로마를 방문

한 다음에 스페인으로 여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 한번도 스페인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4. 주제

가. 로마서의 주제는 인간의 보편적인 죄악성과
죄인인 인간이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완전
하고 성결하게 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마련
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유대주의자들과
의 문제로 마음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로
마서에는 복음의 참된 진리에 대해 많은 내용
이 할애되었습니다. 복음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루면서 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와 그에 대
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 대답하고 있습니다.





2 장

/

전도자 바울의 준비

제 2 장 전도자 바울의 준비

훈련 목적

- * 로마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한다.
- *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한다.
- * 로마서의 영적인 흐름을 깨닫는다.
- *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한다.

한주간 숙제

- * 로마서를 정독한다.
- * 날마다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 * 받은 은혜를 영성일지로 남긴다.

1.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택함을 받았습니다(롬 1:1). 우리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도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사도라 주장하는 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할 것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사도의 직분

[롬 1: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을까요? 사도는 어떤 일을 담당하는 자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2.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았습니까(롬 1:15-17).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의인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전하여 형제를 구원받도록 인도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은 복음을 부끄러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복음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여 그 사람으로하여금 구원받을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까?

[롬 1:15]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롬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롬 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라는 말은 요사이 기독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라는 말은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룩한 단어입니다. 교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사도'라는 말을 사용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으로 몰리기 쉽습니다.

최근에 신사도운동을 하는 교회나 목회자가 많아지면서 사도라는 단어는 거의 외면을 당하는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사도'란 단어는 천주교에서 역사를 따라 사용되어왔습니다. 천주교의 교황이 예수님의 사도적인 직분을 받아 계승되어져 온다고 저들은 말합니다. 천주교의 1대 교황이 베드로이기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란 말씀을 들었기때문에 천주교는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마 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죽은 것은 네로황제 때의 일이니까 기원후 60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된 것은 콘스탄틴 황제 때의 일이었으니 기원후 313년 정도때의 일입니다. 베드로가 죽은지 250년도 넘었는데 굳이 베드로를 천주교의 교황으로 삼았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를 세울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천주교만 '사도'직의 계승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사도'직분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물론교도 그들의 지도자를 가리켜 '사도'라고 칭하고 사도직분이 계승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지방교회는 위치만 니와 윌트니스 리를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단교단에서 '사도'직분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성경에서 언급된 '사도'라는 단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사도"라는 단어(아포스톨로스)는 일반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사도는 제사장처럼 계승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사도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아들이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도의 계승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도'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는 구절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엡 4:11)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도는 교회의 여러 직분들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 복음전하는 자와 목사, 그리고 교사와 같은 직분자들이 질서있게 운영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사도에 대해 다시한번 언급하였는데 이 또한 교회의 질서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고전 12:27]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전 12:28]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에베소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도'에 비해 고린도전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도'는 직분보다는 사도의 직분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 더 비중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본문말씀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직분을 담당하는 사람, 둘째는 선지자의 직분을 담당하는 사람, 셋째는 교사직을 담당하는 사람,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 다음은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 다음은 은사가 있는 사람, 그 다음은 서로 돕는 구제일을 담당하는 사람, 그 다음은 교회

운영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 다음은 각종 방언을 하는 사람"(고전 12:28)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사도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사직분을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사도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또 다른 사람은 구제를 잘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한 지체로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사도직분을 담당하는 사람만 있으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 모든 사람이 친교만 담당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평신도만 되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전 12:29]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고전 12:30]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고전 12:31]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도들

성경에는 여러 사도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열 두 제자들이 '사도'라는 지칭을 받았습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눅 6:13]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가룟유다가 죽은 후에 공석인 제자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 맛디아가 선택되었을 때 성경은 맛디아를 사도라 칭했습니다.

"[행 1:26] 제비 뽑아 맛디아를 얻으니 저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바울은 그의 기록에서 스스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롬 1: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라는 직분이 거의 예수님의 제자와 바울에게 사용되었지만 다른 제자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에게도 사도란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행 14:14]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들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 가서 소리질러."

예수님의 동생은 '야고보'에게도 사도란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갈 1:19]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외에도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사도'라는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빌 2:25]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곳에 언급된 '사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성경은 디도 역시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후 8:23]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기서도 '사도'의 헬라어 단어인 <아포스톨로스>가 '사자'로 표기되었습니다.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

첫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 오직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사도로 부름을 주셨습니다.

"[막 3:13-14]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된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갈 1:1]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행 9:15]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둘째,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며 그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룟유다가 죽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그 조건이 되었

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행 1:21]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행 1:22]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바울은 예수님과 생활을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셨기때문에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던 것입니다.

"[고전 15: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고전 15: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전 15:9]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셋째, 사도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행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세우신 후에 저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고 권세를 부여받은 12명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었으며 병자를 치유하였습니다.

"[마 10:1]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 겸손함을 보이면서 사도는 마땅히 기적을 행하는 자여야 함을 말하였습니다.

"[고후 12:11]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에게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 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고후 12:12] 사도의 표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직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성경은 거짓사도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거짓 사도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성경이 기원후 100년 이내에 씌여진 것임으로 그 이후에도 여전히 거짓 사도가 존재하였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는 지금도 거짓 사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고후 11:13]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켈흠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 2: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계 2:3]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고 거짓 사도가 아닌 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했듯이 사도라는 직분은 특정한 사도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인 성격을 띄는 지도자가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도적인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담임목사입니다. 담임목사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임목사를 교회의 지도자로 기름을 붓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담임목사의 말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담임목사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담임목사의 말에 불순종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담임목사의 말에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자는 곧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님은 "[눅 10:16]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을 너무 거부감스럽게 느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를 사도로 세우셨으니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도를 세우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마땅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사도는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행하는 자입니다. 사도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자입니다. 사도는 성도를 온전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도록 예비된 섬기는 종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가 필요합니다. 샅근 사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짓 사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입니다. 그런 사도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엡 4:11]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엡 4:12]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만일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가리켜 사도라 칭하면서 성도들 위에 왕처럼 군림하려 한다면 그는 거짓된 사도가 틀림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도라면서 당신의 아픔을 함께 나누지도 않고 위장된 사랑으로 당신에게 접근한다면 그를 멀리하십시오. 그는 거짓 사도요 샅근 목자인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교회에 '사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주님의 성품을 닮았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그 사람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습

니까? 그 사람이 당신보다 위에 서있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의 하인입니까?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을 종처럼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사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는 아닙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어떤 이단적인 교단에서 세워진 사도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을 이용하기 위해 사도라고 칭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확인하십시오. 주님께서 거짓 사도를 시험한 것을 잘하였다 칭찬하셨듯이 당신 또한 거짓 사도된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진정한 사도는 주님의 열매가 있지만 거짓 사도는 마귀의 열매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십시오. 당신이 사도입니까? 그렇다면 사도의 일을 하십시오. 하지만 만일 당신이 가르치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몸되신 교회 역시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 질서에는 사도도 있으며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성경에 언급된 것들을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스스로 더해서 유익될 것이 없고 스스로 빼서 정죄받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3 장

/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자

제3장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자

훈련 목적

- * 로마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한다.
- *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한다.
- * 로마서의 영적인 흐름을 깨닫는다.
- *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한다.

한주간 숙제

- * 로마서를 정독한다.
- * 날마다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 * 받은 은혜를 영성일지로 남긴다.

1.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훗날 심판 받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듣지 못하였다는 핑계를 댈 수 없음은 하나님의 만드신 천지만물을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롬 1:18-20). 나는 천지만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하나님은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 복음을 전해듣지 못하였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

[롬 1: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

[롬 1: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롬 1: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

고 하셨을까요? 당신은 천지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2.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허망한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짐으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오히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롬 1:21-25).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세상의 썩어질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추구하고 있습니까?

3.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이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은 수치스러운 정욕을 말합니다(롬 1:26-27). 동성애자들은 저들의 수치스러운 정욕으로 인해 그에 따른 죄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롬 1: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롬 1: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롬 1: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롬 1: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롬 1:25]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롬 1:26]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롬 1:27]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음욕은 성전을 더럽히는 가장 강력한 악행입니다. 나는 음욕으로 나의 몸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왜 음욕은 성전을 더럽히는 가장 큰 악행일까요? 당신은 음욕으로 당신 몸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4. 모든 악행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롬 1:28-31). 하나님은 모든 악행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여 저지른 악행을 버리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여 저지른 악행을 싫어하십니까? 당신이 저지른 악행 중에 로마서 29-31절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하면 그런 악행을 없앨수 있을까요?

5. 바울은 누구든지 남의 죄를 판단하는 자는 스스로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롬 2:1-3).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롬 1:28]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롬 1:29]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롬 1:30]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롬 1:31]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롬 2: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무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똑같은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판 받지 않기 위해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라 명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지 말라 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6. 바울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롬 2:6-8).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 때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세

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롬 2:2]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롬 2:3]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롬 2:6]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롬 2:7]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롬 2:8]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상의 것을 추구하며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나는 인내와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 영생이 임한 다 하였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다 하였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습니까?

7.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롬 3:23). 하나님의 영광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차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
더니

8.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 땅의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피 흘림으로 모든 죄값을 사하였습니다(롬 3:25-26).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으며 주님의 피의 공로를 믿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 (그룹제안)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예수님의 피 값을 요구하셨을까요? 주님의 피흘리심은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당신은 주님의 피의 공로를 믿으며 의롭다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롬 3:25] 이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롬 3:26]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4 장

/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가?

제 4 장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가?

훈련 목적

- * 로마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한다.
- *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한다.
- * 로마서의 영적인 흐름을 깨닫는다.
- *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한다.

한주간 숙제

- * 로마서를 정독한다.
- * 날마다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 * 받은 은혜를 영성일지로 남긴다.

1. 바울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게 될 것이라 말하셨습니다(롬 2:12-13). 율법을 행하는 자는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이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행하지 않은대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롭다

[롬 2:12]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롬 2:13]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함을 얻으리니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율법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듣는 자입니까?

2.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하지만 양심은 인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율법입니다 (롬 2:14-15). 그렇기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율법을 통해 선하나 행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양심에 대해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율법과 양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율법과 양심을 모두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3. 믿는 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로 부터 모독을 받게 됩니다 (롬 2:23-24). 이는 믿는 자들이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믿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진실과 행함으

[롬 2:14]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롬 2:15]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롬 2:23]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롬 2:24]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 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로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고 하였습니까? 믿는 자들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독을 받는 것일까요? 당신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독을 받지 않는습니까?

4. 만일 할례자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는 무할례자나 다를바 없습니다. 진정한 할례자는 심령의 변화를 받는 자이기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심령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롬 2:25-29). 나는 외모보다 나의 심령을 먼저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할례자가 율법대로 행하지 않을 때 무할례자와 같게 되는 것일까요? 표면적인 유대인과 이면적인 유대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표면적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니면 이면적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롬 2:25]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롬 2:26] 그러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롬 2:27]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롬 2:28]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롬 2:29]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사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5.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롬 2:17-23). 오직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 줄 뿐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할 때 그것으로 인해 의롭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심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당신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할 때 의롭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실 때 비로소 의로운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6.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롬 3:27-31). 나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줄 믿습니까?

▶ (그룹제안) 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롬 2:17]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롬 2:18]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롬 2:19]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롬 2:20]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롬 2:21]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롬 2:22]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롬 2:23]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롬 3:27] 그러면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롬 3:28]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여김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7. 아브라함은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은 저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롬 4:2-3, 18-22). 이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나는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시는 것일까요? 당신은 삶 가운데 행위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8. 바울은 일을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줄우리가 인정하노라
[롬 3:29]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
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
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
방인의 하나님도 되시
니라

[롬 3:30] 할례자도 믿음
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
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
님은 한 분이시니라

[롬 3:31] 그러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
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롬 4: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나와 하나님 앞에
서는 없느니라

[롬 4: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
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롬 4:18] 아브라함이 바
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
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
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
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롬 4:19] 그가 백 세나 되
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
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
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롬 4:20] 믿음이 없어 하
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

의로 여기시고 불법을 사하심 받고 죄를 가리움 받고 죄를 인정치 아니함을 받는다고 말하였습시다(롬 4:4-8). 이처럼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인정치 않고 불법이 사함받고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복있는 자입니까?

▶ (그룹제안) 어떻게 죄있는 자가 죄없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을까요? 어떻게 일하지않는 자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고 경건치 않는 자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모든 불법과 경건치 않음과 일하지 않음과 죄를 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일까요?

9.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롬 5:1-2).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며 하나님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 (그룹제안) 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

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롬 4: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롬 4:22]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롬 4:4]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롬 4:5]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롬 4:6]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바

[롬 4:7]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롬 4:8]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롬 5:2]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니까?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아버지께 그것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10. 율법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롬 5:20-21). 율법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지을 때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역할이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의롭다 함을 얻으려 노력하는 것일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당신은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있습니까?

11. 예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는 죄 아래 거하지 않습니다(롬 6:1-2).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문에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롬 5:20]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롬 5:21]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롬 6:1] 그러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롬 6: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는 것일까요? 당신은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까? 주님의 은혜아래 거하기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어진 당신의 모습에 대해 서로 나눠봅시다.

12.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롬 6:3-5). 모든 죄악과 죄악으로 인한 사망의 열매들이 주님과 함께 장사됨으로 인해 죽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모든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부활하여 새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새생명을 얻었음을 믿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세례를 받은 것처럼 장사되었다고 표현하였을까요? 물에 잠긴 세례(침례)의식을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을 얻으시고 부

[롬 6:3]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롬 6: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활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새생명을 얻었음을 믿고 있습니까?

13. 율법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만 우리를 주관합니다(롬 7:1-2). 하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아래 거하게 될 때 비로소 율법에서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아래 살며 율법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어떻게 하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은혜아래 거할 때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당신은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당신 삶은 율법이 사로잡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롬 7:1]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롬 7:2]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할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시며 '할례'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창 17:10)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할례의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반드시 행해졌던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신지 8일만에 성전에 가

서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할례할 팔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러라 모세의 법대로 곁례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 고" (눅 2:21-23)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의식을 명령하시면서 "[창 17:11]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양피'를 베라는 것입니다. '양피'는 남성 성기의 끝부분 표피를 말합니다. 양피를 자르게 되면 피가 많이 흐르게 됩니다. 오늘날 처럼 의학이 발달되었을 지라도 할례의식을 행한 남성은 며칠동안 제대로 걸음을 걷지 못합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는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하다간 병균이 몸 속으로 들어와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양피의 제거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피가 베어지면서 흐르는 피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상징합니다. 또한 베어진 양피는 세속적인 것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뜻합니다. 바울은 "대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찌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롬 2:28-29)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할례의 영적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에 있어서 단순히 '육적인 할례'에 대해 강력하게 꾸짖으며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행 15장 참조). 그래서 바울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골 2:11)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바울은 할례의식이 마치 세례의식과 같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골 2:12)고 언급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첫 관문인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 매우 고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수 5장)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이 충분히 목격할 수 있고 정탐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앞두고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며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의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의식을 행하게 한 것은 저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 물어봐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욱 강하게 저들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새롭게 떠오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누워있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긴박한 때에 할례의식을 명령하셨는지에 대해 곰곰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은 할례의식과 함께 더욱 강력하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남자고 여자고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창 17:14)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례

세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의식으로 교회에서는 성찬의식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확고히 정립하게 됩니다. 세례의식에는 물세례와 성령세례, 그리고 불세례가 있습니다.

* 물세례

물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식을 통하여 부부가 되었음을 사람들 앞에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 3:13]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마 3:14]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마 3:15]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서는 부활 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아가 세례를 베풀 것을 명하셨습니다.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물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물세례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몸으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물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엡 4: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엡 4: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엡 4: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물세례의 선결조건은 회개입니다.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며 그 죄를 자복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물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 2: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 성령세례

성령세례는 성령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성령세례를 받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세례를 받습니다.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

원을 얻으리니"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세례만 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성령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물세례보다 성령세례가 중요합니다.

물세례가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성령세례를 통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행위이지만 성령세례는 하나님께 보여지는 의식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세례자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 불세례

세례요한은 자신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의 차이를 이해했습니다. 세례요한은 물세례만 베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성령세례와 불세례를 주십니다. 세례요한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마 3:11]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세례를 주시며 또한 불세례를 주십니다. 불세례는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불세례입니다. 불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할 수 있으며 악한 세력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은 불세례를 받고자 노력해야 함

니다.

우리가 불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장

/

믿는 자의 삼 십

제 5 장 믿는 자의 삶

훈련 목적

- * 로마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한다.
- *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한다.
- * 로마서의 영적인 흐름을 깨닫는다.
- *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한다.

한주간 숙제

- * 로마서를 정독한다.
- * 날마다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 * 받은 은혜를 영성일지로 남긴다.

1.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합니다(롬 5:2-4).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을 통해 인내하고 연단되어져 소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환난을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 연단되어지고 연단되어짐으로 소망을 이루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환난은 인내함이 필요한 것일까요? 왜 인내를 통해 연단이 필요한 것일까요? 왜

[롬 5:2]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롬 5: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이는 환난은 인내를,

[롬 5: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연단될 때 비로소 소망을 얻게 될까요?

2.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롬 6:8-9).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주님과 더불어 죽는 것이며 그럴 때 비로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3.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롬 6:10-11). 누구든지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여 사망이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나 또한 부활되어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할 것을 믿습니까?

▶ (그룹제안) 왜 사망이 주님을 주장하지 못하는

[롬 6:8]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롬 6:9]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롬 6:10]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롬 6: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것일까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주님과 함께 함으로 사망이 당신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4. 성경은 "너희는 죄로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며 오직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롬 6:12-13).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육신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릴 수 있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지체로 죄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며 오직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어떻게 하면 육신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않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당신의 육신은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5. 성경은 우리가 전에는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우리 지체를 의

[롬 6:12]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롬 6: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합니다(롬 6:19-20). 누구든지 죄에 속한 자는 지체를 불법에 사용하지만 의에 속한 자는 거룩함에 참여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불법을 행하지만 주님께 속한 자는 의로 거룩함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는 나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우리의 지체가 불법에 이를 수 있고 우리의 지체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당신은 지체를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6. 죄는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롬 7:7-10).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제정된 것이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식케 하고 마음에 각양 탐심을 불려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멀리해야만 합니다. 나는 죄에서 멀리하며 죄없이 살고 있습니까?

[롬 6:19]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롬 6:20]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롬 7:7]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롬 7:8]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롬 7:9]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니까?

▶ (그룹제안)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이르게 하고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도 죄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생명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죄에서 멀리하고 있습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
었다
[롬 7:10]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
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
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7.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뿐 아니라 율법도 선한 것입니다(롬 7:11-13). 나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해 내가 어떻게 죄인인지 깨닫고 있습니까?

[롬 7:11] 죄가 기회를 타
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롬 7:12] 이로 보건대 율
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
도다
[롬 7:13] 그런즉 선한 것
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
뇨 그릴 수 없느니라 오
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
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니라

▶ (그룹제안)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선하고 의롭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으로 인해 의에 이르고 있습니까? 은혜를 누리는 것과 함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서로 연관될 수 있습니까?

8. 비록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따르길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죄의 정욕에 사로

잡혀 죄를 짓고 맙니다(롬 7:21-25). 오직 하나님께 거하는 자만이 온전히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죄의 정욕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우리의 마음의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까? 당신의 육신은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합니까?

9.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롬 10:17).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표적이나 기적으로 인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얻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주 읽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을 얻고 있습니까?

[롬 7:2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 이로다

[롬 7:22] 내 속 사람으로 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 워하도

[롬 7: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롬 7:24] 오호라 나는 곤 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 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롬 7: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 노라

[롬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2:9]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롬 12:10]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 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 며

[롬 12:1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0.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십니다(롬 12:9-16). 모든 악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며 선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명하셨을까요? 악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당신은 주님을 따르는 자로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11.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 하십니다(롬 12:17-21). 원수갚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오직 원수를 사랑할 뿐입니다. 나는 원수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원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갚지 말라 명하셨을까요? 당신이 스스로 원수를 갚을 때 어떠한 나쁜 결과가 일어날까요? 당신은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롬 12:12]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롬 12:13]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롬 12:14]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롬 12:15]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6]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있는 체 말라

[롬 12:17]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롬 12: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롬 12:19] 내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롬 12:20]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쒀아 놓으리라

[롬 12: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2. 하나님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하셨습니다(롬 13:1-2).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왔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권세자를 거스릴 때에 권세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나는 권세자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들에게 굴복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우리는 권세자에게 굴복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권세자에게 굴복하라고 명하셨을까요? 당신은 권세자에게 굴복하고 있습니까?

14. 하나님은 권세자에게 선을 행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권세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셨습니다(롬 13:3-4). 억지로 굴복하기 보다는 선한 양심으로 저들을 대하대 공세를 바치며 저들을 존중하길 원합니다. 나는 권세자에게 선을 행하며 공세를 바치고 권세자를 존경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어떻게 하면 우리는 권세자를 두려

[롬 13: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롬 13:2]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롬 13:3]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롬 13:4]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권세자에게 억지로 굴복하는 것과 양심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권세자를 존중하며 공세를 바치고 있습니까?

15. 하나님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롬 13:8-10).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 계명이 있을지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율법을 이루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한 것일까요? 당신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하고 있습니까?

16.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의 믿음 연약함에 대해 용납하고 저들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롬 14:1-3, 롬 15:1-2). 믿음이 큰 자는 오히려 믿음이 작은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저들로 하여금 믿음이 커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나

[롬 13:8]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롬 13:9]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롬 13: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롬 14:1]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롬 14:2]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롬 14:3]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며 비판하지 않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하셨을까요? 당신은 형제의 믿음없음을 비판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혹 당신의 비판함으로 인해 상처받고 주님을 떠난 형제가 있습니까?

17.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형제의 심령에 상처를 줄만한 것들을 하지 말라 하십니다 (롬 14:13-14). 형제가 속되다 여기는 것이 있으면 형제를 위해 속된 것을 금해야 합니다. 만일 형제가 음식으로 걸림돌이 된다면 그 음식을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형제가 속되다 여기는 것을 버림으로 형제에 대한 사랑을 표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형제에게 상처를 줄만한 부딪히는 것이나 거친 것은 무엇일까요? 혹 당신은 어떠한 것으로 인해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가 당신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 형제는 왜 당신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까요?

[롬 15:1]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롬 15:2]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롬 14:13]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롬 14:14]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17. 유대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성도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형제를 위해 구제헌금을 모았는데 이방인 지역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까지 합세하였습니다(롬 15:25-28). 우리는 가난한 형제를 위해 구제하는 손길을 펼쳐야 합니다. 나는 가난한 형제의 필요를 채우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형제를 위해 구제헌금을 모았을까요? 오늘날 교회 모습과 초대교회의 모습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가난한 형제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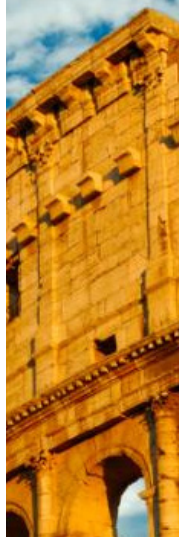
[롬 15:25]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롬 15:26]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롬 15:27]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빛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롬 15:28]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지나서 바나스로 가리라





6 장

/

사망과 생명

제 6 장 사망과 생명

훈련 목적

- * 로마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한다.
- *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한다.
- * 로마서의 영적인 흐름을 깨닫는다.
- *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한다.

한주간 숙제

- * 로마서를 정독한다.
- * 날마다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 * 받은 은혜를 영성일지로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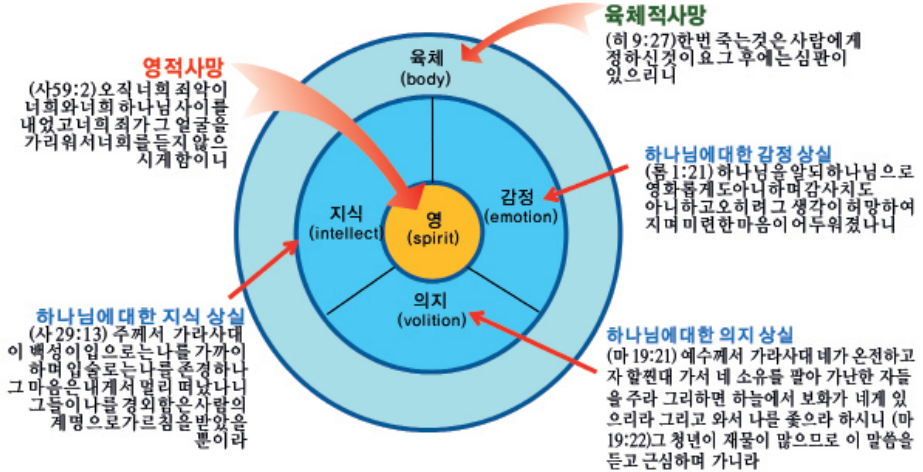
1. 아담의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롬 5:12-14).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불사불멸의 몸으로 만드셨지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필사필멸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 (그룹제안)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이 땅에 들

[롬 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롬 5:13]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롬 5:14]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



아담의 범죄의 결과 = 육체적 사망과 영적 사망을 가져옴(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영적사망이 해결됨. 하지만 누구든지 육체적사망을 경험해야 함)

어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으로 인해 이 땅에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고난을 믿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이라

2.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예수님을 통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롬 5:17-19).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합

[롬5:17]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

게 하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함으로 생명을 얻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당신은 생명을 얻고 있습니까?

3. 성경은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롬 6:23). 만일 우리가 죄에 속한 자이면 우리에게는 사망만이 있을 뿐이지만 주님께 속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룩함으로 의에 이르러 영생을 얻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죄의 삯은 사망입니까? 당신으로 하여금 죄에 속하게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당신으로 하여금 의롭게 살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받았습니까?

4. 누구든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정죄함이 없어 주

게 받는 자들이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이다

[롬 5:18]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롬 5:19]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롬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롬 8:1-2). 나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주님 안에 거할 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일까요? 당신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롬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롬 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원죄의 파괴

마땅히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서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가리켜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 자범죄는 원죄와 함께 죄의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이미 원죄는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 5:19)

순종치 아니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며, 순종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담을 통해 원죄가 생겨났으며 십자가를 통해 그 원죄는 파괴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원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원죄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붙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원죄에서 자유 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는 것은 그것 자체가 지옥을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원죄는 파괴되고 막혔던 벽은 무너졌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음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롬 5:10)

당신의 원죄가 없어지길 원하십니까? 원죄로부터 해방되고 싶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당신을 사로잡았던 사망은 달아나게 됩니다. 지옥의 권세는 당신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이제 지옥은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자들만이 떨어지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9)

용서에 대한 오류

비록 원죄에서 해방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는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원죄에서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은 다시금 그 원죄가 저들을 묶어 쥔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구원 받는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바 되

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히 6:4~8)

좀 더 자세히 어떤 죄를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 빛은 예수님의 빛을 말합니다. 이는 그가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4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 하늘의 은사는 구원을 말합니다. 이는 그가 이미 구원을 받았음을 말합니다.
3. (4절)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 성령의 참여한 바 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가 성령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은사까지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4.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신앙의 깊이를 쌓은 사람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5. (5절)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은 천국의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은사가 아닌 영적인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이미 성령의 귀한 은사를 받은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범주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저들이 '타락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타락한다는 것은 위의 신령한 경험들을 멀리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신령한 경험과 귀한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저들의 마음이 그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저들은 타락한 자들이고 마땅히 지옥 불에 떨어질 것이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들의 행위가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원죄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타락은 원죄를 다시 뒤집어 씌우는 것과 같은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만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죄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히 10:26~29)

26절을 보십시오. '진리를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음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이라는 성경구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슨 죄를 말합니까? 예수그리스도를 짓밟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죄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박는 행위입니다. 보혈의 능력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훼방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을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마 12:31)

이런 죄를 짓는 자는 도무지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결코 용서 받지 못함

니다. 한번 주님을 사랑했다가 그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이전에 한번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지옥에 갈 것인데 하물며 예수의 사랑을 짓밟는 행위자가 마땅히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녕 이와 같은 죄를 범한 자들에겐 천국에 들어 갈 기회는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은 "구원받은 자들도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저들이 내세우는 구절은 앞서 언급했던 히브리서 6장과 10장입니다. 그 외 다른 구절들도 있지만 두 구절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나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보다 더 큼니다. 죄에 대한 형벌보다 죄에 대한 용서가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형제의 죄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마 16:22)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형제를 평생토록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비록 히브리서 기자가 지옥불에 떨어질 죄라고 언급했지만 여전히 저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회개하여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죄도 회개하여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습니다. 문제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지옥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목사들은 다음 구절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어떤 목사는 윗 구절은 단순한 자범죄에 국한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거룩에 대한 말씀은 구체적으로 강하게 언급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은 대충 이해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을 파괴하거나 무시하거나 축소시키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여 용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훼방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크기와 넓이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자범죄의 종류

자범죄는 우리 스스로 짓는 죄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자범죄는 결코 우리의 구원과 영향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자범죄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 막지 못합니다. 그 어떠한 자범죄도 하나님의 구원을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보다 더 크십니다.

하지만 자범죄가 있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천국엔 하나님의 영광 밖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 밖엔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지옥의 축소형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 내는 것
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눅 11:20)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쳤을
때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미 우리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난 후에도 천
국의 삶을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 있는 동안에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를 버리는 것입
니다. 죄가 있으면 그곳은 더 이상의 천국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죄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얻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
라 하나님의 영광 체험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죄가 있으면 성
령의 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을 보십시오. 이곳에 죄가 가득합니다. 이러한
죄는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
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
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롬
1:29~31)

바울은 다음과 같은 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
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거나 탐

탐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전 6:9~10)

"음행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
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
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
이요"(갈 5:19~21)

또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죄 역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고 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엡 5:3~5)

많은 사람들이 위의 죄의 구절들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님의 나라를 유업(혹은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 의문을 갖
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위의 구절들이 맞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물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죄를 짓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에는 이런 죄들이 없
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것들 외에도 수없이 많은 죄들이 기록되
어 있습니다. 다만 이곳엔 대표적인 구절들만 적은 것뿐입니다.

이런 죄를 가지고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한 점 흠
도 점도 용서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 어떠한 죄도 천국에 거할 수 없습

니다.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천국의 개념을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현재의 삶과 죽은 후의 삶으로 구분되었듯이 천국도 이 생에서의 천국이 있고 죽은 후의 천국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생에서의 지옥이 있고 죽은 후의 지옥도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도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죄가 있다면 당신은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이 땅에 천국도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체험도 없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할 수 없으며 성령의 불도 받지 못합니다. 오직 회개만이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회개는 당신에게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체험과 신령한 은사 모든 것을 줄 것입니다.





7 장

/

육과 영

제7 장 육과 영

훈련 목적

- * 로마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한다.
- *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한다.
- * 로마서의 영적인 흐름을 깨닫는다.
- *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한다.

한주간 숙제

- * 로마서를 정독한다.
- * 날마다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 * 받은 은혜를 영성일지로 남긴다.

1.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을 하는 자는 사망을 가져오지만 영의 생각으로 영적인 일을 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롬 8:5-8). 나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당

[롬 8:5]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롬 8: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롬 8: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롬 8: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신이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열매는 무엇
입니까? 당신이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
게 해 주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2.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게 됩니다(롬
8:9).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지
만 영으로 살며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
입니다(롬 8:10-13).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
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육으로 살면 죽고 영으로 살면 사
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이 영으로 살고 있습
니까?

3. 누구든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
녀입니다(롬 8:14-15).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
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롬 8:16-17). 성령은 우리 육신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과 교통합니다. 나는 성령

[롬 8: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
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
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이아니라

[롬 8:10] 또 그리스도께
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
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
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것이니라

[롬 8: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
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
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
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
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
시리라

[롬 8:12] 그러므로 형제
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
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
대로 살것이아니라

[롬 8:13] 너희가 육신대
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
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롬 8: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
들이라

[롬 8:15] 너희는 다시 무

의 인도함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영과 교통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왜 성령은 우리의 육신과 교통하지 않고 우리의 영과 교통하는 것일까요? 당신은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습니까?

4.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롬 14:15).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며 평강은 내 마음에 채워집니다. 희락은 우리의 육신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육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마음에 평강이 있고 육적으로 희락을 누리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까? 당신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롬 8:16]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롬 8:17]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롬 14:15]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케 하지말라





8 장

/

성령님과 성도의 관계

제 8 장 성령님과 성도의 관계

훈련 목적

- * 로마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한다.
- *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한다.
- * 로마서의 영적인 흐름을 깨닫는다.
- *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한다.

한주간 숙제

- * 로마서를 정독한다.
- * 날마다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 * 받은 은혜를 영성일지로 남긴다.

1.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신 성령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탄식함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롬 8:26-27).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해 친히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고마움을 알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하나님은 성령하나님을 우리에게

[롬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롬 8:27]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게 보혜사로 보내 주셨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함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게 합니까? 당신은 성령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친히 탄식함으로 간구하시고 계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2.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롬 8:29-30).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을 당신은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미리 정하셨고 이 땅에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으며 영광을 체험케 하심을 믿습니까?

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아니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겠

[롬 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습니까(롬 8:32). 하나님의 은사는 곧 성령의 은사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는 임하였습니다. 성령하나님이 믿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 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일까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습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습니다(롬 8:36-39).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까?

▶ (그룹제안) 하나님과 당신 사이를 끊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롬 8:32] 자기이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롬 8: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롬 8: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롬 8: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롬 8: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유지하고 있습니까?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든 요소는 무엇입니까?

5.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영적예배입니다(롬 12:1). 영적예배는 육적예배가 아닙니다. 영적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며 거룩한 예배이며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날마다 영적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영적예배와 육적예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날마다 하나님께 영적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6.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십니다(롬 12:2).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삶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하나님
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고 있습니까?

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한 지체입니다
(롬 12:4-5). 비록 우리의 성격과 모양이 다를지
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은 우리
의 직분이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의 은사가 그리스
스도의 것이기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직분
과 은사를 가진 자로 교회 안에서 형제와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
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성격과 모양이 다른
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교회 안에서
형제와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롬 12:4] 우리가 한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
을 가진 것이 아니니
[롬 12: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
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령사역을 행하는 교회는 강력한 교회입니다. 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런데 성령사역을 하는 교회는 오히려 일반교회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요?"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값지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일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거나 서로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각자가 제 갈 길로 가는 식의 교회운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 인해 서로 다른 교단이 생기고 그 교단 안에서도 서로 다른 교파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교회는 사실상 하나의 교회입니다. 별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니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여야 하며, 교파가 다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종교와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귀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 주님의 몸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전 3:16)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곧 성전이며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된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우리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성전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 많은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가리켜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은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케 하시는 자의 총만이니라” (엡 1:23)

바울은 교회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 각 성도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주님의 몸은 성도들의 상태에 따라 변화가 될 것입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주님의 몸을 만들려고 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죄에 빠져 살아가거나 악한 마음을 먹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몸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회개하며 정결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주님의 몸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지체

모든 성도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각 성도는 각자의 기질과 성품과 능력에 따라 몸의 각자 다른 지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전 12:27)

주님의 몸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주님의 몸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시험에 빠져 낙심하게 될 때에 몸의 어느 한 부분에 상처를 입은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빨리 상처 난 부위에 약을 바르고 붕대로 감싸줘야 합니다. 이렇게 가벼운 상처라면 쉽게 그 상처가 치유되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가 음란 죄에 빠지게 되거나 도박에 빠진 죄를 습관적으로 짓게 된다면 이것은 몸에 종기가 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몸에 종기가 나면 예전에는 ‘고약’을 붙였습니다. 한 동안 붙인 고약을 떼어 내면 종기의 뿌리가 고약에 달라 붙어 빠져 나옴을 느낍니다. 어떤 경우엔 몸에 구멍이 뿔하니 뚫려 있기도 합니다. 종기의 뿌리가 뽑아져 나오면 일반 상처처럼 소독을 하고 약을 바른 후 붕대로 감싸주면 곧 낫습니다.

이처럼 종기의 뿌리를 뽑아 내는 것은 음란 죄나 도박죄같이 심각한 죄를 짓는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며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용서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듯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교회 내에 음란의 죄가 번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도박의 영이 교인들에게 번지지 않도록 막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은 말끔히 치유됩니다.

하지만 암같이 강력한 질병이 있을 땐 주님의 몸도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심한 경우엔 죽기도 합니다. 주님의 몸이 죽는다는 것은 교회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암세포는 원래 일반 세포와 똑 같은 세포입니다. 정상적인 세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쁜 세포로 돌아선 것입니다. 암 세포는 정상적인 조절기구의 통제를 받지 않고 무질서하게 증식만을 고집하는 세포입니다. 암 세포가 일반 세포와 다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제 멋대로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 제 멋대로 행동하는 성도가 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 주님의 몸은 철저히 질서를 유지해야만 정상적이고도 건강한 몸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면서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자기 고집대로 이끌어가고 할 때 교회는 엄청난 상처를 당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몸을 가장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서에 순종하며 따르는 반면에 암세포는 세워진 질서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맘대로 아무렇게나 증식하기 때문에 문제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암세포가 존재합니다. 암세포가 많이 모이게 되면 암 덩어리가 됩니다. 하지만 암 세포가 있거나 암 덩어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세포가 암 세포로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암 세포가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런대로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암 세포가 자극을 받아 활동을 하게 되면 온 몸에 퍼지게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 문제가 활동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사건이 발단하면 활동하지 않고 있던 문제들이 바깥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문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암 세포를 자극시키는 것은 분노입니다. 의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스트레스'입니다. 누군가 빵을 치면 그것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것을 가져가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분노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사에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신경질적이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무조건 대듭니다. 그 사람이 옳은지 자신이 그릇되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은 다 적으로 생각하고 원수로 여깁니다. 이런 사고방식과 못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용히 있던 암 세포를 자극해서 암 세포를 활동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조용히 있는 암 세포가 활동하는 암 세포로 바뀔 때 다시 한번 활동하는 암 세포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항암인자'라는 특유의 면역세포를 준비하셨습니다. 일종의 '최후의 방어진'이라고 할까요. 항암인자의 말을 암 세포가 잘 들으면 활동을 멈추고 다시 조용한 상태로 있게 됩니다. 또한 조용히 있던 암 세포가 정상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이 '항암인자'는 '회개'입니다. 성도가 회개를 하게 되면 순식간에 정상적인 몸으로 변형됩니다. 잘못된 습관과 더러운 인격 등을 통해서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몸이 정상적인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돕는 것이 '주님의 보혈'입니다. 누구든지 '회개'와 '보혈'을 통해서 정상적인 성도로 변하게 됩니다.

암에 걸린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의 '보혈'과 눈물의 '회개'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처절할 정도로 울부짖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못된 성격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의 정욕에 빠져 살았던 못된 본성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한 줄기 치유의 광선이 병든 사람의 영혼에 내리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더럽고 추악한 세포들을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리곤 건강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암 세포

교회에 이러한 암 세포가 있으면 안됩니다.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성도는 모두 암 세포입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질서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암 세포와 같은 성도는 자기 뜻이 절대적입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이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마귀는 '교만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교만을 사랑했으며 교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결국 교

만 때문에 망했고 하나님 면전에서 쫓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사 14:13-14)

루시퍼는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위대한 자리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저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의 정죄함을 당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아름다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칭호를 뒤로한 채 '마귀'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세상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단이 하늘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눅 10:18)고 말씀하셨듯이 루시퍼는 그의 교만 때문에 저의 인생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 지옥 불에 떨어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암 세포는 루시퍼와 같은 교만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만을 좋아하면 루시퍼처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하는 당신의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루시퍼를 따른 천상의 천사들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사도요한은 요한계시록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계 12:9)고 말했습니다. 마귀를 쫓았던 그의 사자들이 얼마쯤 되는지는 다음구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계 12:3-4)

마귀가 하늘전쟁에서 미가엘에게 패한 후에 땅에 떨어질 때 자신과 함

게 하는 천사들을 이끌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무려 그 수가 하늘 천사의 삼분의 일에 해당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을 꺾으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저들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당연히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할 때 마귀의 세력은 우리 앞에 꿈쩍도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는 교회 내에 암 세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이 교만을 심습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교만'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귀처럼 '타락'하게 될 것이고 '멸망'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말은 성령사역을 하는 교회에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일반교회에도 절실히 필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건강한 주님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반드시 바울의 말한 바를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전 12:12)

바울의 이 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성도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12:27)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

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고전 12:26) 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주님의 몸은 '몸 가운데 분쟁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는 서로가 아름다운 존재이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고전 12:21)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발이 스스로를 가리켜 몸에 붙어있지 않다고 주장하지도 못하고 손이 스스로를 가리켜 몸에 붙어있지 않다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몸의 지체로 있다면 스스로 "나는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교회에서는 누가 크고 누가 작은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사모하고 높은 직책을 탐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낮은 직분을 속한 사람들을 마치 자신보다 낮은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여 주셨다" (고전 12:23-24)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바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고전 12:28)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내에 몇 가지 그룹을 정하셨습니다.

1. 사도(아포스톨로스)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진정한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

람들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 '사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유대인 중의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대제사장에 넘기는 일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메섹 도로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행 9:4)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니다. 다만 바로 앞 구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행 9:3)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바울은 눈을 뜨고 사물을 볼 수 없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님이 되었던 3일 동안에 자신에게 들려졌던 주님의 음성에 대해 깊이있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라는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도'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주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 중 오직 선택받은 사람만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열린환상으로 주님을 만난다 할찌라도 주님께서 당신을 '사도'로 부르지 않았다면 당신은 사도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도'라고 칭한 사람은 당신도 그 사람을 '사도'라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함이 옳으며 주님께서 그런 당신의 믿음과 순종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 1:1)

바울은 사도였으며 그의 사도직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사도가 된 것이었습니다.

2. 선지자(프로페테스)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누구라도 스스로를 가리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암 3:7)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언의 은사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중 누구에게 이런 수많은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은사 있음 때문에 선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셨듯이 그렇게 오늘날에도 직접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3. 교사 디다스칼로스)

우리나라 성경에서 '교사'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단어는 성경에서는 '선생'이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을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을 호칭할 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사'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랍비'보다 훨씬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사'라고 말을 하면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을 뜻한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단순히 육적이고 혼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일반교사의 뜻이라기 보다는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영적선생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로 들 수 있는 안디옥교회에도 '교사'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트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짓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행 13:1). 그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을 성경은 '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단순한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결심을 했을 때 그것이 마지막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때 바울은 저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바니 곧 모든 겹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행 20:18-20).

바울은 저들에게 겹손과 눈물을 보였습니다. 시험을 참으며 주님을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성령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것은 담대히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교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으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의 '교사'는 바울의 행한 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사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목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교사'는 '선생'보다는 '목사'라고 번역해도 좋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물려온 장로들을 향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행 20:22)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행 20:37) 바울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이여! 바울처럼 되소서. 당신들이 목회를 그만 둘 때 누구 한 성도라도 이처럼 당신의 목을 끌어 안으며 "떠나지

마세요. 목사님"이라고 올 사람들이 있습니까?

4. 능력(뒤나미스)

바울이 언급한 교회의 지도자 중에서 네번째 언급된 것은 직분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능력'이라는 단어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일곱번째까지는 모두 은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 세우신 일곱가지는 모두 은사적인 구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라는 직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적인 은사를 자지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몇 가지는 어떠한 직분이 아니라 은사적인 구분이며, 은사를 통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들이 종류에 따라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적인 은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최고의 우선적인 자리에 속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 중에서 이미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 '사도'적인 직분을 담임목사가 갖습니다.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은 '사도'의 직분을 받은 담임목사를 통해서 전해져 옵니다. 그렇기때문에 교회의 모든 성도는 '사도'의 직분을 받은 담임목사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임목사의 말에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사도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사도'의 직분을 부여받은 담임목사에게 순종하면서 당신의 은사를 협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비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울 때,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선지자' 직분을 받은 사람이나 '교사' 직분을 받은 사람의 다음 단계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할지

라도 당신의 위치는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당신이 금가루를 내리게 하고 금이빨을 만들어 내는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질서에 있어 네번째 순위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5. 병고치는 은사(이아마 카리스마)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병고칠 수 있는 신유은사 소유자보다 더 위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에게 찾아와서 신유의 은사를 전이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환경속에서는 누구든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만들려고 할 때마다 일부러 한적한 곳으로 떠나 계셨습니다. 또한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함이 들 때마다 스스로 한적한 곳에 거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자세입니다.

6. 서로 돕는 것(안틸레프시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단 한번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사용된 것 말고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남을 ‘돕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더 깊은 내용을 찾아보니까 ‘붙잡음’ 이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실족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다시금 교회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붙잡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바나바사역’ 이라고 합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요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나바 때문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로 인해 소망을 갖게 되었고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바나바사역’ 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에게 주보를 보내고 교회 잡지를 보냅니다. 어떤 교회는 엽서나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서로 돕는 은사에 속

합니다. 교회에는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7. 각종 방언을 하는 것(게노스 글롯사)

각종 방언은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은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언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선교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신 것은 대신해서 대화가 가능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이야 전세계 언어를 빨리 통변할 수 있는 기계가 통역자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각 나라의 언어를 빨리 통변할 수 있는 통역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비행기를 타고 빨리 올 수도 있고,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통역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각 족속의 방언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교사들이 작은 부족을 방문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러한 은사가 있으면 저절로 그 족속들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우 빨리 그 부족의 언어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방언통변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을 통변하는 것보다 직접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방언하는 은사는 사실상 가장 낮은 위치에 속한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열할 때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가장 크고 점점 작은 열매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뿐일 것이라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통해 모든 성령의 열매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열매를 나열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가 맨 마지막에 언급된 ‘방언들 통변’ 하는 은사보다 더 큰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강한 은사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를 종류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2:28절에 언급하고 있는 질서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가 ‘사도’이며 가장 나중에 ‘방언하는 자’입니다. 방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사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서로 돕는 자’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윗단계의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을 경우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행동을 불순종이라고 판단할 것이며 당신은 사울왕처럼 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다운 주님이 몸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보통 교회는 <목회자-장로-권사-집사-성도>순으로 질서를 세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는 이러한 질서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권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직분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세워진 질서에 따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천주교의 경우는 일반교회에 비해 다소 직분이 복잡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황-추기경-주교-사제-부제-신도>의 질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성경에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내가 지나치게 성경적이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옳은 것입니다. 나는 지나칠 정도로 성경에서 모든 정보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저들에게 제자훈련을 했다면 오늘날에도 예수님처럼 12제자를 세우고 12제자에게 집중적인 제자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따라 한다면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이발을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옷도 그렇게 입을 수는 없겠죠. 시대적인 흐름이 있는 것이니 요즘 목사에게 옛적에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두루마리를 들고 다니라고 권유한다면牧사는 심방 갈 때 마다 U-haul 트럭을 빌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적용될만한 것들은 얼마든지 많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다 놀라운 비밀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일곱 가지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라는 권고를 바울로부터 들었습니다. 단순히 바울의 의도하는 바가 아닐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은 성경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말씀임을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는 바울이 말한 의도를 따지지 말고 그대로 실천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언급은 성령사역을 하는 교회일 때 적용할 수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방언을 한 명도 못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이러한 질서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음성도 못 듣고 환상도 못 보고 신유의 은사도 없는데 어떻게 질서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음성을 못 듣고 환상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을 다 무시하고 오늘날 세운 질서가 옳다고 주장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일차적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해서 성경이 틀렸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틀릴 수 있고 나는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다고 보는 것이 옳은 믿음일 것입니다.

열쇠

하나님께서서는 교회의 질서를 세울 때 '열쇠'를 사용하십니다. '열쇠'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열쇠를 사용할 때 문이 열립니다.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차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열쇠가 필요합니다. 열쇠 없이 문을 열거나 자동차를 몰고 가면 문제가 됩니다. 도둑이라고 몰릴 수도 있고 잘못하다간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 10:9)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이시기 때문에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열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담임목사가 한 사람만 필요한 법입니다. 당연히 성가대에는 한 명의 지휘자밖에 필요치 않습니다. 동시에 두 지휘자가 지휘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물론 필요에 따라 거대한 성가대를 지휘할 때는 한 명의 지휘자를 보고서 여러 지휘자가 똑 같이 지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성가대에는 한 명의 지휘자만 필요합니다.

정명훈 지휘자는 매우 유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성가대는 정명훈 지휘자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명훈 지휘자가 우리 교회 성가대를 매주마다 지휘하면 몰라도 우리 교회 지휘자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초등학생들을 인도하는 전도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전도사 허락 없이 주일학교 시간에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해당 전도사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초등학교를 인도할 수 있는 열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황이라고 할지라도 시골의 작은 성당에 가서 그곳 사제를 제치고 직접 예배를 인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주교 전체의 열쇠는 교황이 받았지만 작은 성당을 인도하도록 열쇠를 받은 사람은 그곳의 사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아랫사람이 다 자기보다 낮은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열쇠만 있습니다. 그 열쇠로 열 수 있는 문이 있으며 그 사람은 그 문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담임목사는 그에게 맡겨진 열쇠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교회 담임목사 허락 없이 말씀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지라도 담임목사 허락 없이 설교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조차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

오.

'열쇠'라는 단어는 유치원생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열쇠'에 대한 이해를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완전 망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집집마다 찾아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준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말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 교회를 하나씩 떠났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권사님은 담임목사를 불평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담임목사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교인들이 다 떠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기자신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알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 권사님이 뭘 잘못했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열쇠가 없는 사람이 자신의 의지대로 담장을 넘어서 그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쩌면 열쇠를 가지고 있었겠죠. 친교담당 열쇠! 자신에게 주어진 열쇠가 친교담당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열쇠인줄 알고 열심히 문을 열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열다가 안되니까 도둑같이 담장을 넘어간 것이 화근이 되었고 결국은 큰 문제로 발생한 것을 어찌 그 권사님이 알겠습니까. 어쩌면 천국에 갈 때까지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열쇠'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기란 이처럼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쇠'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열쇠'에 대한 이해를 한 사람은 좀처럼 남의 죄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울의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딤후 5:22)는 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주일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 담당 선생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절대로 담당 선생님께 "야~"라든가 "누구야"라면서 이름을 함부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항상 "000 선생님"이라고 깎듯이 대우를 해 줬습니다. 왜 그 권사님이 그렇게 대우해 줬을까요?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초등학교 1학년의 열쇠를 쥐고 있는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쇠'에 대한 이해입니다.

담임목사가 해임되거나 교회를 떠나면 그 밑의 부목사나 전도사는 다 해임이 됩니다. 이것이 일반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담임목사가 오면 그 목사를 통해서 새롭게 부교역자가 선정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왕이 죽으면 왕의 신하들이 통째로 다 같이 죽는 것도 어찌면 이와 같은 원리일 것입니다. 이것은 무식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부목사의 적이 담임목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담임목사를 제거해야 자신이 담임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들은 모두 공동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교회의 질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교회 질서를 무시한 채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담임목사가 있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신 스스로 예언자쯤 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임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만 담임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큰 문제거리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도무지 담임목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임목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마치 담임목사와 동급이라도 된 것처럼 행세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당연히 '열쇠'가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열쇠'가 없다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혹자는 "목사님, 그러면 왜 성령님께서서는 말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생각은 대부분 음성을

듣는 사람이나 그것으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지배적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무조건 음성을 들으면 당연히 말을 해야 하는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래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들은 성령님의 음성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담임목사에게 찾아가 성령님께서 들은 내용을 말씀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과정을 통해 들은 음성에 대해 분별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의 질서때문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에 따라 들은 음성을 점점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이러한 점점을 무시한 채 교회의 질서를 파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고전 14:32)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다른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제재를 받게 하였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예언만 듣지 말고 여러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순서대로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질서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게 하였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찌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고전 14:29-31)

오늘날 많은 교회는 교회 안에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배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교회의 질서

가 파괴되는 것을 염려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의 담임목사가 예언을 하지 못할 경우엔 더더욱 배제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적으로 교회 내에서 절대로 예언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심할 경우엔 교회에서 떠나라는 통지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는 바울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하심도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최고인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듣는 사람이 더 나은 것입니다.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나 아니냐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나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과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단순히 예언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담임목사가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면 바울의 말대로 행해야 합니다.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바는 이렇습니다. 누군가 예언을 한다면 그 사람의 예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예언자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면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의 예언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수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2~3명 정도의 예언이 적절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예언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예언만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선입견이 들어간 예언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예언자들의 예언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에 대한 분별을 통해서 교회는 보다 정확한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보다 건강한 주님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

성령사역을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도

음성을 듣고 너도 음성을 듣는데 우리는 다 같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너도 음성을 듣고 나도 음성을 들으면 서로 똑 같은 등급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만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음성을 들었지만 백성 중에서도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했을 때 모세와 함께 했던 70명의 장로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장 그 예언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회막에 나가지 않았던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각자의 집에 머물면서 예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년이 잼싸게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출 11:29)고 말했습니다.

모세만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처럼 음성을 듣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를 위해 오직 모세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여호수아에게 넘겨졌습니다. 열쇠가 여호수아에게 넘겨졌을 때 모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같이 가나안땅을 정복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120세였지만 아주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열쇠'가 여호수아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열쇠'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알지 못해서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번이고 똑같이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다면 무지를 가장한 교만한 자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남의 '열쇠'에 대한 제대로 인식을 못한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내게 어떤 열쇠가 주어졌는지 잘 모를 때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런 열쇠를 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신은 마치 열쇠더미를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린 입으로 아무 소리를 내 뱉고, 달린 손으로 아무에게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자신이 교만해지는 것도 모르고 자신이 죽을 줄

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잠 18:12)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게 된 것은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삼분의 일이나 되는 천사들도 '교만'을 좋아해서 마귀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면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교만'을 더 사랑해서 멸망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실제로 자신이 교만으로 죽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교만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쳐든 놋뿔을 기억합니까? 광야생활에 짜증을 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뿔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위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장대에 놋뿔을 달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놋뿔을 바라보기만 하면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 생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대에 단 놋뿔을 쳐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놋뿔을 쳐다 보고 산 사람보다 쳐다보지 않고서 죽은 자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목이 굳어 있어 도무지 남의 말을 듣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교만한 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적으로 교만한 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교만한 줄 알면서도 교만한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담배가 안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끊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절대로 남의 '열쇠'를 빼앗지 마십시오. 절대로 내가 갖지 않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남의 '열쇠'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냥 당신에게 주어진 '열쇠'만 사용하십시오.





9 장

/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제 9 장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훈련 목적

- * 로마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한다.
- *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한다.
- * 로마서의 영적인 흐름을 깨닫는다.
- *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한다.

한주간 숙제

- * 로마서를 정독한다.
- * 날마다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 * 받은 은혜를 영성일지로 남긴다.

1. 바울은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움은 범사에 많으나 그 중의 제일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셨습니다(롬 3:1-2).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왔으나 그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 전해졌기때문에 유대인은 이방인보다 귀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자보다 귀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 유대인이 되고

[롬 3:1] 그런즉 유대인의 나움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니
[롬 3:2]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낫다고 말했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입니까? 당신이 복음을 듣고 믿었으므로 참된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2.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기때문에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롬 3:9-18).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오는 자에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와 의롭다 함을 받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의인입니까?

3. 바울은 그 마음에 큰 금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골육의 친척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

[롬 3:9] 그러면 어떠하
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
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
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
하였느니라

[롬 3:10] 기록한바 의인
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
며

[롬 3:11] 깨닫는 자도 없
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롬 3:12] 다 치우쳐 한가
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
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롬 3:13]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
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
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
고

[롬 3:14] 그 입에는 저주
와 악독이 가득하고

[롬 3:15] 그 발은 피를
리는데 빠른지라

[롬 3:16]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롬 3:17] 평강의 길을 알
지 못하였고

[롬 3:18] 저희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
라

는 것이었습니다(롬 9:1-3).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가족을 살리고 우리의 친족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족과 친족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까? 당신도 바울과 같은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족과 친족에게 전하였습니까?

4.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양자가 되는 은혜를 베푸셨으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케 하셨습니다(롬 9:4-6).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과 맺어졌으며 하나님의 율법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은 민족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믿습니까?

▶ (그룹제안)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민족에게

[롬 9:1]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 불어증거하노니

[롬 9:2] [절과 같음]

[롬 9:3]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롬 9:4]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롬 9:5]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아멘

[롬 9:6]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베푸신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영적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5. 하나님은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십니다(롬 9:6-9). 육신의 자녀는 인간의 혈통에 의한 것이지만 약속의 자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게 된 믿음을 통한 것입니다. 나는 약속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자녀입니까?

▶ (그룹제안) 왜 하나님은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셨을까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육신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자녀입니까?

6. 하나님은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취하십니다(롬 9:22-24). 이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되게 하시며 그를 자녀로 삼으

[롬 9:6]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롬 9:7]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아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였으니

[롬 9:8]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롬 9:9]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롬 9:22] 만일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롬 9:23]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롬 9:24]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 (그룹제안) 왜 하나님은 유대인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까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7.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을 통해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을 좇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롬 9:30-31).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하나님은 어떤 자를 의롭다 여기십니까? 왜 하나님은 율법으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의롭다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의를 좇지 못한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일까요? 당신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롬 9:30]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롬 9:31]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8.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나 저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으로 얻어지는 것인지 알지 못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습니다(롬 10:1-4).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좇지 아니하고 인간의 의를 좇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나는 인간의 의를 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좇아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알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얻는 의를 추구하는 잘못을 범했을까요? 혹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9.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롬 10:9-10). 나는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 받았음을 믿습니까?

▶ (그룹제안) 구원 받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당신

[롬 10:1]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롬 10:2] 내가 증거하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롬 10: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롬 10: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롬 10: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였습니까?

10. 이스라엘의 실족함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롬 11:7-8). 우리의 실족함으로 인해 형제가 복을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나의 실패와 좌절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에게 도움을 주고 복을 주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믿습니까?

▶ (그룹제안) 이스라엘의 실족함이 이방인을 구원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실패가 오히려 형제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적이 있습니까? 나는 형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있습니까?

11. 참감람나무에게 젖붙임 받아 생명을 얻은 돌감람나무는 참감람나무에 대해 자궁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됩니다(롬 11:17-18). 왜냐하면 그의 생명이 참감람나무로 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방인이 복을 받았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결코 무시하거나 배척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롬 11:7] 그런즉 어떠한
노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
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롬 11:8] 기록된 바 하나
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
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
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
라

[롬 11:17] 또한 가지 열
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
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롬 11:18]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궁하지 말라
자궁할지라도 네가 뿌리
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
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
는 것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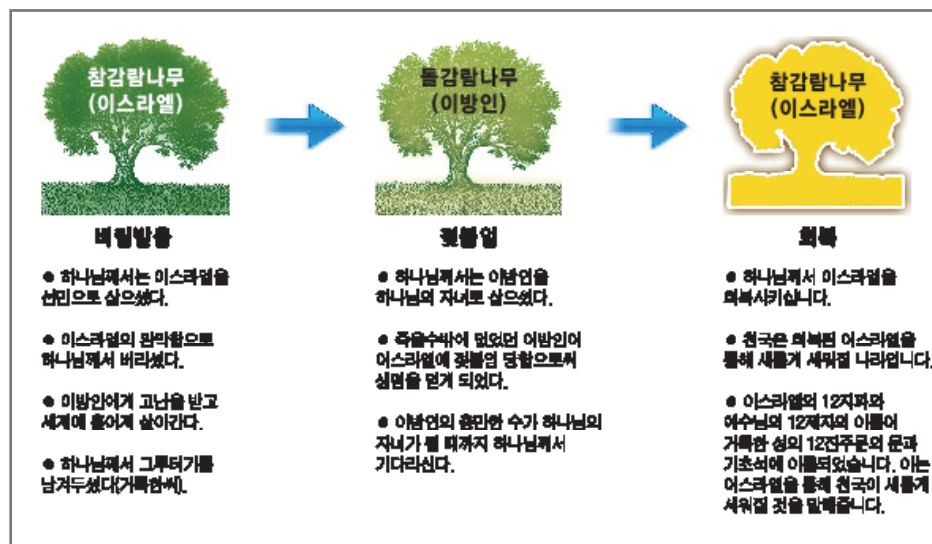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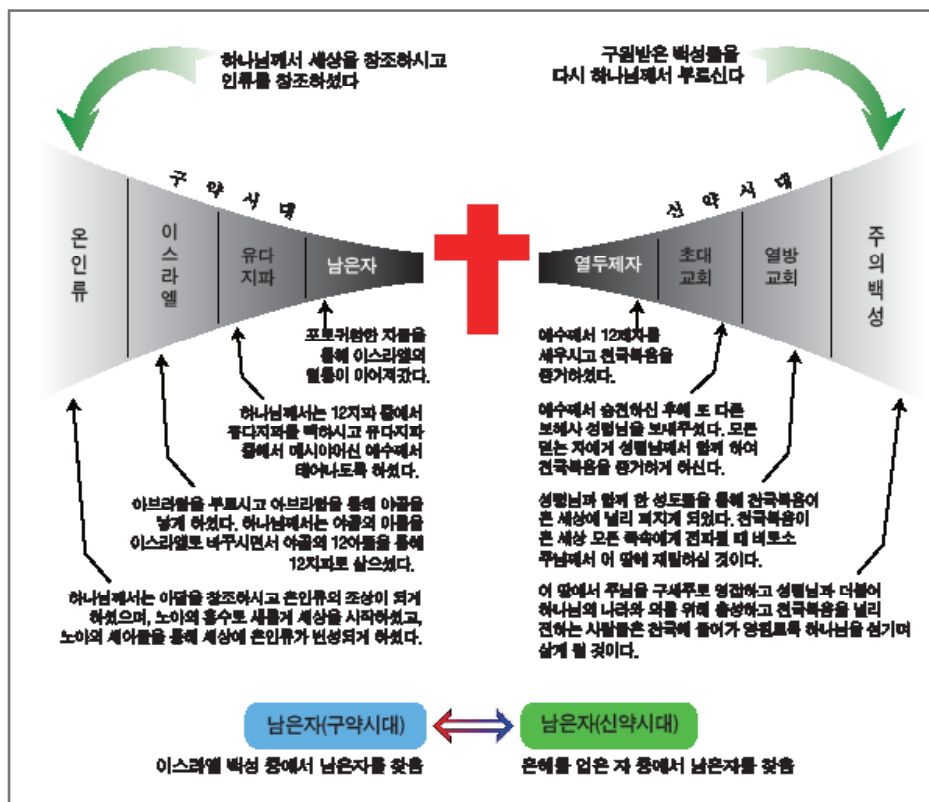
살아갑니까?

▶ (그룹제안) 돌감람나무는 어떻게 생명을 얻었습니까? 돌감람나무는 참감람나무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당신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12.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참감람나무로 여기시고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을 참감람나무에 젖붙여 소생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이방인들이 구원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젖붙임은 계속 하실 것입니다(롬 11:25).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을 참감람나무에게 언제까지 젖붙임을 하시는 것일까요? 당신은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롬 11: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음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로마서반 교재

초판발행 2014. 12. 24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등 록 제C-2013-018595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909-8844(손에스터목사)
홈페이지 www.WalkingWithBible.com / www.LivingWaterChurch.co
이 메 일 mail@walkingwithbible.com

국제신학교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이런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각종 성령의 은사(대언예언, 신유은사, 영분별, 방언통변 등)를 통해 강력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목회자의 소명이 있으나 생활책임을 위해 불가불 여가시간으로 신학교를 다니고 싶은 분!

신학생 모집요강

▶ 사역학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사역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국제신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국제연합)총회의 신학교로서 강도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국제신학교는 1년 6학기로 운영되고 있으며 능력에 따라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 국제신학교는 수시입학이 가능하며 한부분 사역자일 경우 학비 면제를 받습니다.

- 접수: www.wslseminary.com
- 이메일: inourlove@gmail.com

- 문의: 손에스더목사(010-3909-8844)
- 유튜브채널: www.RevivalForChurch.com